

외교부 : 아태 국민들에게 혜택 주길 기대



중경고신산업개발구에 있는 중경흥원오토바이회사 공장 직원들이 13일 생산라인에서 중남미 국가로 수출될 오토바이에 대해 검사하고 있다. / 신화넷

외교부 대변인 림검은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2026년 세번째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의장국(东道主)을 맡게 될 것이라며 각국과 함께 ‘푸트라자야(布特拉加亚) 비전 2040’을 공동 리행하고 아시아태평양 협력을 심화해 아시아태평양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림검은 또 “습근평 주석은 개혁개방은 중국과 세계가 함께 발전하고 진보하는 역사적 과정으로서 중국의 발전은 아시아태평양과 세계 발전에 더 많은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면서 “중국은 각국이 계속해서 중국 발전의 급행렬차에 탑승해 평화발전, 호혜협력, 공동번영의 세계 각국 현대화를 실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 신화넷

G20, ‘글로벌기아·빈곤퇴치런맹’ 출범



16일, 리오데자네이로의 산투스두몽공항에서 찍은 G20 정상회의 포스터. / 신화넷

브라질 대통령 룰라는 18일 리오데자네이로에서 열린 제 19차 G20 정상회의 개막식에서 주요 20개국(G20) ‘글로벌기아·빈곤퇴치런맹’ 출범을 선포했다.

룰라는 축사를 통해 기아와 빈곤 퇴치는 오늘날 세계의 중요한 의제라며 “글로벌기아·빈곤퇴치런맹” 창설은 더욱 번영하는 사회와 평화로운 세계를 만드는 필수 조건으로 유엔 2030년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 부합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는 각

국이 기아와 빈곤 등의 의제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건의하며 정책을 수립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유엔 세계식량계획(WFP) 등 국제기구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전세계적으로 약 7억 3,300만명이 여전히 기아에 직면해있다.

한편, 이번 제 19차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는 18일—19일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로에서 열렸다. / 신화넷

브라질 정계 인사:

중국·브라질 협력, 량국 및 세계에 혜택 가져다줘

브라질 하원 의원 파우스토 피나토는 최근 신화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브라질과 중국이 전면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계속 심화시키고 량자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량국 국민에게 이익을 가져다줄 뿐만 아니라 더욱 공평하고 공정한 세계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피나토는 중국은 브라질 농산품의 주요 수출시장으로 브라질 경제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거대한 기회를 봤다. 량국은 협력해 지속가능한 기술을 개발하고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춰나가야 한다. 브라질과 중

국의 무역 관계는 굳건하고 전망이 밝다. 앞으로 량국의 무역 협력은 계속 확대되고 더욱 다원화될 것이다.” 그는 기술과 혁신 분야의 파트너십은 량국 협력의 포인트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피나토는 “중국은 지난 십여년 동안 기술 진보와 혁신을 통해 세계 최대 경제체중 하나가 됐다.”며 “중국의 빈곤퇴치 사업이 거둔 성과는 눈부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이러한 노력은 중국인민들의 생활의 질을 개선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도 모범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신화넷

1월—10월 대 브라질 수출입액 9.9% 증가



중국국가전력투자그룹회사 브라질회사가 투자하고 건설한 브라질 마란가투 태양광발전소가 6월 7일 가동식을 거행했다. 이 태양광 프로젝트의 설비용량은 446키로와트에 달해 매년 근 55만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 사진은 이날 찍은 마란가투 태양광발전소. (드론사진) / 신화넷

올 1월—10월, 중국의 대 브라질 수출입액이 1조 1,400억원으로 집계됐다. 17일, 국가 해관총서에 따르면 이는 전년 동기 대비 9.9% 증가한 수치로 전곡 전체 대외무역 증가를보다 4.7%포인트 높다. 그중 수출은 4,320억 8,000만원, 수입은 7,081억 5,000만원을 기록해 수출입 모두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중국과 브라질 수교 50주년을 맞는 해이다. 지난 반세기 동안 중국과 브라질은 경제무역협력에서 풍성한 성과를 거뒀으며 량자간 경제무역 관계는 장족의 발전을 이뤘다는 평가이다. 2023년 기준 중국은 15년 연속 브라질의 최대 무역 동반자이자 최대 수출 대상국으로 자리를 잡았다. 브라질 역시 오랜 기간 중남미지역내 중국의 최대 무역 동반자 위치를 지켜왔다. / 국제방송

중국·브라질간 경제무역협력이 지속적으로 심화됨에 따라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 경쟁력 있는 브라질 제품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 해관의 통계에 따르면 올 1월—10월 브라질산 대두, 철광석의 70% 이상이 중국으로 수출됐다. 파프(纸浆), 원유는 40% 이상이 중국으로 수출됐다.

동시에 더 많은 량질의 중국 공업품이 브라질 시장에 진출했다. 올 1월—10월 중국은 2023년 같은 기간보다 11.8% 늘어난 2,168억 6,000만원의 중간재를 브라질에 수출했다. 이는 중국의 대 브라질 수출 총액의 절반을 차지하는 규모이다. 그중 섬유, 자동차 부품, 전자기기, 평판 디스플레이 모듈(平板显示模块) 등 중간재 수출이 빠르게 증가해 각각 15.4%, 26.5%, 31.2%, 22.2%의 증가를 보였다. / 신화넷

1월—10월 대 페루 수출입액 16.8% 늘어



11월 5일, 상해에서 열린 제 7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 페루국가관에서 찍은 ‘따뜻한 락타’ 부스. / 신화넷

최근 수년간 중국과 페루의 경제·무역 협력이 꾸준히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가 해관총서가 발표한 통

계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3년까지 8년간 량국 무역은 년평균 14.6%의 증가를 보였다. 올 1월—10월 량국 무역은 빠른 성장세를 이어왔으며

수출입액은 2,546억 9,0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8% 증가했다.

2013년, 중국과 페루의 관계는 전면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으며

/ 신화넷

[국제시평]

찬카이항, ‘새시대 잉카 옛길’의 새로운 시작점



11월 14일 저녁에 찍은 찬카이항 / 신화넷

14일 저녁, 습근평 국가주석은 리마에서 페루 대통령 볼루아르테와 함께 화상 방식으로 찬카이항 개항식에 참석했다.

습근평 주석은 오늘의 찬카이항은 바야흐로 ‘신시대 잉카 옛길’(印加古道)의 새로운 시작점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미 태평양 연안에 위치한 찬카이항은 페루 수도 리마에서 북쪽으로 약 80킬로미터 떨어져있으며 중국과 페루 ‘일대일로’ 건설의 중요한 프로젝트이자 남미 최초의 스마트 항구이다. 찬카이항은 개항후 라틴아메리카지역의 새로운 허브항이자 태평양 관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찬카이항 1단계 프로젝트가 가동된 후 페루에서 중국으로의 해상운송 시간이 23일로 단축되고 물류 비용이 20% 이상 절감되며 페루에 연간 45억달러의 수입과 8,000개 이상의 직 접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

습근평 주석은 또한 14일 리마 대통령령에서 볼루아르테 대통령과 만

/ 신화넷

/ 국제방송